

AUTHOR 정정숙 (Chung Sook Chung)

TITLE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2)

(A Study on the Thought for Education of
Calvin (2))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0 no.3 (Autumn, 1983):175-196

칼빈의 教育思想 研究 (II)

鄭 正 淑

<조교수·기독교 교육학>

서 론	2. 칼빈 神學의 내용
I. 칼빈의 生涯와 時代의 特性	1 神觀
1. 칼빈時代의 特性	2 聖經觀
① 人文主義의 發軔	3 教會觀
② 宗教改革의 發軔	4 人間觀
③ 스위스의 改革運動	5 社會觀
2. 칼빈의 生涯와 活動	III. 칼빈의 教育 실천과 貢獻
① 成長時節	1. 칼빈의 教育實踐
② 칼빈의 回心	1) 收會를 통한 教育活動
③ 기독교 강요의 發軔	2) 著作을 통한 教育活動
④ 제네바의 改革運動	3) 學敎를 통한 教育活動
II. 칼빈의 教育思想의 神學的 基礎	2. 칼빈의 教育적 실천
1. 칼빈 神學의 特長	1) 聖經敎育에 미친 영향
1) 하나님 中心의 神學	2) 人文主義 敎育에 미친 영향
2) 성경 中心의 神學	3) 生活敎育에 미친 영향
3) 교회 中心의 神學	結 語

II. 칼빈의 教育思想의 神學的 基礎

신학자(神學者)로서의 칼빈은 신학사상사(神學思想史)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⁷⁰⁾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문헌들은 많다.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그의 주석들과 각종 규칙들은 그의 신학사상을 토대로한 작품들이다.

칼빈의 저술들은 광범위하나 그의 체계있는 사상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일목요연하다.⁷¹⁾ 이것은 칼빈신학을 연구하는데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칼빈의 교육사상(教育思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신학사상(神學思想)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의 교육활동은 그의 신학적 바탕 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건물과도 같기 때문이다.

1. 칼빈 神學의 特長

개혁자들의 사상은 꾸준한 탐구의 결실이다.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자기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신앙과 신학 이해(神學理解)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 신학의 특장(特長)은 여러 모양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몇가지 특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① 하나님 中心의 神學

칼빈 신학의 특성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主權思想)이다. 흔히들 칼빈주의 5대교리(五大敎理)⁷²⁾나 예정론(豫定論)을 칼빈 신

70) 신학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4)의 부록에 수록된 "Calvin as a Theologian"을 참고하라.

71) *Ibid.*, pp. 481-3.

72) 오대교리가 칼빈주의의 전부이거나, 칼빈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해들이 있으나 오대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되어졌다. 이 교리를 쉽게 기억하도록 한 것이 T-U-L-I-P이다. 이것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

학의 전부인양 이해하는데 이것은 그의 사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칼빈 신학은 그 출발이나 종결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한다. 칼빈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⁷³⁾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혜는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진리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 많은 사실들이 어느 편에 속한 것인가의 식별(識別)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행 17:28)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상이 두장됨이 없이는 인간된 자기 자신의 자아상(自我像)을 바로 식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분명히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자신의 존재(存在)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인간론(人間論)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⁷⁴⁾

인간은 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對面)을 통하여 자신을 바로 바라 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분명한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칼빈은 인간 실존(人間實存)이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그의 사상이나 활동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인식론적(認識論的)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조건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다. Cf. D. 스틸, C. 토머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서울: 정음출판사, 1982).

73) *Inst.* 1:1:1.

74) *Inst.* 1:1:2.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그의 모든 저작들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創造)하시고, 섭리(攝理)하시며, 보존(保存)하신다는 사상은 모든 영역(領域)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착점(歸着點)이 되게 한다.⁷⁵⁾

그러므로 칼빈 신학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그의 모든 주장들을 이해하는 통로(通路) 구실을 하게 되며, 이것을 통하여 그의 사상을 조명(照明)하게 된다.

② 聖經 中心의 神學

칼빈 신학에서 성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신학의 기본적이고, 첫째되는 자료요, 그 논리 구조(論理構造)의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학의 방향(方向)을 결정한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든 투쟁은 성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의 신학을 성경중심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의 바탕과 방향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장식(李章植)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⁶⁾

칼빈의 신학을 성서주의(聖書主義)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敎理)와 신학이론(神學理論)이 철학적 사색(哲學的 思索)이 아니고 오직 성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의 성서주의는 성서에 있는 교리적 교훈을, 이룰 때면 예정(豫定)과 섭리(攝理)와 같은 어려운 교리를 되도록 쉽게 설명하며 변증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나 있다.

75)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대해서는 Arthur W. Pink, *The Sovereignty of God* (London: Banner of Truth, 1961)을 참조하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름으로 한국개혁주의 신학회에서 발간되었다.

76) 李章植, 改革教會의 神學과 信條의 특징, 칼빈 神學의 現代的 理解(서울: 韓國神學大學 出版社, 1978), p. 8.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3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의 목적은 거룩한 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학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세분하여 종교의 개설을 재공하려고 애썼으며, 바로 성경에 친숙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과 그중에 있는 것을 어떠한 제목 아래서 찾을 것을 쉽게 알기 위함이며 동시에 저희가 성경에서의 안내서를 가지고 또 절연한 발걸음으로 거기에 전진하여 가게하기 위함이다.

칼빈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모든 방면으로 일관하여 관철하려는 온통의 사상이었다.⁷⁷⁾ 칼빈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⁷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된다. 칼빈의 성경관(聖經觀)은 (기독교 강요) 제 1권 6장에서부터 10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다.⁷⁹⁾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신앙(信仰)과 행위(行爲)의 유일한 규범(唯一規範)이다. 그의 성경 주석들은⁸⁰⁾ 그의 성경중심의 신학원리(神學原理)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으로서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사상을 정립(定立)시켰다. 그의 신학은 성경의 신학이요, 성경에서(from Bible)의 신학이다.

㉓ 教會中心의 神學

칼빈 신학의 특장 가운데 하나는 교회중심의 신학이다. 칼빈은 그

77) 전경연, 칼빈의 성역과 그 神學思想(서울: 신교출판사, 1959), p. 95.

78) *Inst.*, 1:1:1.

79) 기독교 강요 제 1권 6장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밝히며, 7장에서 9장까지는 성경의 정당성(validity)을 논하고, 10장에서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육성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인식하는자를 논하고 있다.

80) 칼빈의 '성경주석'은 신구약의 각기 일부분만 제하고 다 주석되었다. 한국어본이 번역되어 각 성서도서 간경회에서 40권으로 완간되었다.

의 설교에서 교회의 본질(本質)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진리가 저장되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집이라고 하였다.⁸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집을 다스리는 명예를 주신 것을 알지 아니하면 안된다. 실로 하나님이 거락시키고 그의 존엄(尊嚴)하심을 알게 하시는 집이다. 곧 이것은 진리가 세상에서 유지되고 존제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팔방이다.⁸²⁾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전반적인 본질(本質)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즉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사귄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이다.

칼빈은 그의 모든 주석들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의 결합(結合)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고, 모든 인간은 지체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統一)이 이루어지고, 신앙공동체(信仰共同體)가 형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교회의 통일이 있기 때문이다(엡 1:22). 머리되신 그리스도는 생명력(生命力)이 모든 기관을 통하여 퍼지는 뿌리의 역할을 함으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골 1:18).⁸³⁾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친교(親交) 가운데서 결합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능력(能力)과 재능(才能)을 마로 활용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과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고전 12:27).

그러므로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애정(愛情)과 동정(同情)과 관심과 권의를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⁸⁴⁾

81) "존 칼빈의 가장 유명한 설교 발제", *Calvin and Luther*, 1849, pp. 112-114를 인용한 袁漢高 譯, 루터와 宗教改革, 池克浩 譯, 論文集(서울: 켈폴디아社, 1965), p. 229.

82) *Ibid.*

83) John Calvin, *Commentary on Corinthians*, p. 336; *Galatians and Ephesians*, p. 218; *Philippians, Coloissians and Thessalonians*, p. 152.

84) *Inst.*, 4:1:3,4, *Comm. on 1 Cor.* (12:27) *op. cit.*, pp. 412-13.

칼빈은 그의 요리문답서(要理問答辭)의 사도신조(使徒信條) 제 4 조에서⁸⁵⁾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덕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普
遍教會)를 믿는다. 곧 천사들이나 죽은 자와 산 자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엡 1:1, 골 1:16)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유일한 교중(敎衆)과 공동체(共同體)와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
는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와 왕(王)과 한 몸의 어리이신 것
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
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라에 모이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
한 공동체는 하나의 보편적인 것, 곧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풀어나 갯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⁸⁶⁾

칼빈의 교회관(敎會觀)은 (기독교 강요) 제 4권 제 1장에 설명되어
있다.⁸⁷⁾ 여기서 가견적 교회(可見的敎會)와 불가견적 교회(不可見的
敎會)로 구분한다. 또한 가견적 교회를 삼 복음주의 교회(福音主義敎
會)와 거짓된 교황교회(敎皇敎會)로 구분한다.⁸⁸⁾

칼빈은 그의 신학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그가 작성한 각종 교리서(敎理書)와 치리서(治理書)들을 통하
여 교회의 순수성의 유지와 통일성(統一性)을 강조하며, 교회는 서로
서로를 위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공통된 어머니(the common mot-
her)라고 하였다.⁸⁹⁾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칼빈신학의 특장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명제(命題)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85) 루터의 교리문답서에서는 제 3 조로 표시하였다.

86) Bernhard(tr.), *John Calvin's Christliche Glaubenslehre*, 1887, p. 100

87) See *Inst.*, 4:1:4, 7.

88) 교황권의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에 앉아 있다고 하였다.

89) *Inst.*, 4:1:3, 4. 그리고 칼빈의 주석들을 참고하라.

2. 칼빈 神學의 內容

많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칼빈은 조직적 사상가(組織的 思想家)라
고 할 수 있다. 칼빈은 루터나 츰빙글리, 멜랑톤 그리고 부처 보다
젊은 세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배들의 저작(著作)이나 활동의 영향
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조직적 사상가라고 부른다.⁹⁰⁾

칼빈은 선배 개혁자들에게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겠으나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거스틴(Augustine)이다.⁹¹⁾

이러한 바탕에서 칼빈 사상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교
육사상(敎育思想)과 교육활동의 근거를 밝혀 보려고 한다.⁹²⁾ 그의 신
학사상(神學思想)의 주요 내용들을 살피는 것은 그의 교육사상 탐구
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神 觀

칼빈의 신관(神觀)은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의 신관은 삼
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성부(聖父) 하나님을 교사(敎師)로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
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⁹³⁾

하나님은 세상을 형성하신 것 같이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블름고 계시며, 그의 지혜로써 다스리시고, 그의 은혜로써 보존하시며,
특히 공의(公義)와 심판으로 인류를 주관하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보호로써 방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
능, 정직, 참된 진리 어느 하나라도 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90)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
tan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p. 146.

91)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63), p. 122.

92) 그의 신학사상은 너무 방대하여 그것을 다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기서는 그의 교육사상과 교육활동에 관계된 몇가지 중요 영역들만 취급
하려고 한다.

93) *Inst.*, 1:2:1.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일을 그로부터 바라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받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완전한 권능(權能)을 갖고 계시므로 우리의 〈달랐든 교사〉(a fit teacher)로서 경건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경건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을 교육적 의미에서 교사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죄와 허물을 다스리는 〈심판자〉로 알고, 많은 예배에서 보듯이 자유(自由)와 기쁨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⁹⁴⁾ 그러나 하나님은 〈교사〉(educator)이시며 〈선생〉(teacher)이시다.⁹⁵⁾

하나님의 부격(父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필수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과 연계하면 이해하기 쉽다.⁹⁶⁾

성경에는 하나님을 교사로서 생각하는 개념이 많다.⁹⁷⁾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창조의 역사는 수 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고 있다”고⁹⁸⁾ 하였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바로 교육과정(敎育課程)이다.⁹⁹⁾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믿는 신자에게 다음과 같은 큰 위로를 주신다.¹⁰⁰⁾ 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된다. ② 만사가 경건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③ 만사를 위한 인간의 마음과 노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④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義人)의 안전을 언제나 보살피 주신다. 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작별히 보호해

94) Nels F. S. Ferre,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pp. 104-105.

95) *Ibid.*, p. 106.

96) *Ibid.*

97) 욥기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욥 36: 22)고 하신 말씀이 있다.

98) *Inst.* 1: 5: 14.

99) N. Ferré, *op. cit.*, p. 110.

100) *Inst.* 1: 17: 6.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야 하며, ② 하나님께 전심전력(全心全力)하여 신뢰하여야 하며, ③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생명과 꾸밈없는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④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¹⁰¹⁾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러나 재판장으로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친구가 되신다.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교육자이시다.¹⁰²⁾

칼빈은 성자(聖子) 하나님을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로 설명하였는데 구속론적(救贖論的)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¹⁰³⁾

하나님의 첫 아들(His first-born)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은 이 제국을 다른 자녀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으뜸가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마 3: 17, 17: 5), 이 세상에서 방종하거나 또는 안락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를 짊어졌을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지속적인 십자가 연속의 생애에 불과하였다. 사도는 그 이유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다〉(히 5: 8)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불순종(不順從)으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답을 허시고,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만족하게 하셨다.¹⁰⁴⁾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범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산 증거가 되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¹⁰⁵⁾

101) *Inst.* 1: 10.

102) N. Ferré, *op. cit.*, p. 108.

103) *Inst.* 3: 8: 1.

104) *Inst.* 2: 12: 3.

105) *Inst.* 2: 12: 4.

모범자이신 그리스도는 구속(redemption), 대속물(ransom), 그리고 화해(propitiation)를 위해서¹⁰⁶⁾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이셨다. 왜냐하면, 불의(不義)로 인한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¹⁰⁷⁾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고(요 14:3, 엡 2:6),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해 주셨으며(히 7:25, 9:11-12, 롬 8:34), 이것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하게 하며, 이 능력 안에는 우리의 강함, 능력, 부여함 및 음부됨 이기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엡 4:8).¹⁰⁸⁾

칼빈은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⁰⁹⁾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지배 가운데서, 순결은 그의 잉태 가운데서, 그 사죄는 그의 탄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구속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의 고난 가운데 있고, 만약 저주로부터 면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요(갈 3:13), 또 그의 만족은 그의 희생제물, 그의 정결은 그의 피에 있으며, 또 화복은 그의 음부에 내리감에, 육신의 죽음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신생(新生)은 그의 부활에 있는 것이요, 또 불사(不死)의 삶을 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활에 있는 것이다. 또 하늘나라 기업을 구하면 그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에 있으며, 보호와 안전과 모든 축복의 풍성한 활용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만약 심판에 대한 근심없는 기대를 구한다면 그것은 심판할 권(權)을 주신 그의 권능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이 그 안에 풍성하게 축적되어 있으니만큼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가 아니고 이 생으로부터 차도록 마셔야 할 것이다.

칼빈은 성령(聖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내적 교

106) *Inst.* 2:16:6.

107) *Ibid.*

108) *Inst.* 2:16:16.

109) *Inst.* 2:16:19.

사(內的敎師)로 묘사하고 있다.¹¹⁰⁾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내적교사(內的敎師, the inner teacher)라고 하고, 그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약속으로 침투되는데 그 약속은 이것 없이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우리 귀를 두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엡 1:13).

신적 교사(神的敎師, Divine Teacher)인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효(有效)하게 결합시켜 주기 위한 끈이다.¹¹¹⁾ 성령을(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그리스도에게 결합됨이 되도록)(롬 11:17) 또(그리스도로 옷입도록)(갈 3:27),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내적교사라고 보았다.¹¹²⁾

성령의 고유목적(固有目的)으로서 그가 입으로 가르쳐 준 것을 마음에 떠 오르게 해서 인식시키는 것에 돌리고 있으니, 그 이유는 만약 분별(分別)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빛을 맹인에게 쬐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寶庫)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요(계 3:7), 그의 비취심을 우리 정신의 안광(眼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¹³⁾

성령이 내적 교사인 곳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¹¹⁴⁾ 그러므로 성령의 비치심이 없이는 아무 유익도 없다.¹¹⁵⁾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새로움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다. 성령은 결코 살인, 간음, 술취함, 교만, 쟁투, 탐욕, 기만 따위의 보호자가 아니

110) *Inst.* 3:1:4.

111) *Inst.* 3:1:1.

112) *Ibid.*

113) *Inst.* 3:1:4.

114) *Inst.* 3:1:2.

115) *Inst.* 3:2:33.

교 사랑과 근신, 절제, 화평, 온전, 진실의 창시자이다.

내적교사로서의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주님에 관한 경외심을 배주시며, 진리를 전해사 적용시키시고, 모든 학습(學習) 환경 중에 도와주며 영적인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 보이신다.¹¹⁶⁾

② 聖經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의 사상의 바탕을 이룬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상의 전개가 달라진다.

칼빈은 성경을¹¹⁷⁾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 온 말씀 또는 하늘 교리에 관한 기록, 즉 하늘로부터 온 것(from heaven)이며 아울러 인간들의 손을 통하여 쓰여진 책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주장한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이 무사하게 손상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¹¹⁹⁾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확언(確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역사(役事)를 통해서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나 그것을 후세인(後世人)들에 전달하는 때에 무슨 인간적 요소(人間的要素)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단순히 공증인(公證人)에 지나지 않는다.¹²⁰⁾

그러므로 여러 기자(記者)들이 성경의 각 부분을 기록하였다고 하여도 원저자(原著者)는 한분 뿐이시다.¹²¹⁾ 성경은 사람을 통하기는

116)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p.31와 *The Holy Spirit in Your Teaching* Wheaton: Scripture Press Pub., Inc. 1963), p.24.

117)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 <율법, 예언 그리고 복음> <신약>(神託, The oracles of God) <너에게 선포된 말씀> <하늘 교리에 관한 증거문서> <경전의 원리> 등의 동의어(同意語)로 사용하였다.

118)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에 의해 기록된 서책>이라는 이중성(二重性)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119) *Inst.* 1:1:1.

120) *Inst.* 4:8:9.

121) 칼빈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이며, 여기서 말씀하

하였으나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적 요소는 혼합되어 있지 않다) (*nec quidquam humani habet admistum*)고 하였다.¹²²⁾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¹²³⁾

성경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기자(聖經記者)들의 손을 통하여 기록케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본(原本)에는 잘못이 없으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規範)으로서 이것을 믿는다.¹²⁴⁾

③ 教會觀

칼빈 신학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면서 교회중심(教會中心)의 신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칼빈의 교회관(教會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本質)을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사귄,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교회를 가견적 교회(可見的教會)와 불가견적 교회(不可見的教會)로 구분하였다.¹²⁵⁾ 그리고 가견적 교회는 참 복음주의 교회(福音主義教會)와 거짓된 교황교회(敎皇敎會)로 나뉘었다.

가견적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서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공공연하게 고백(告白)하는 모든 무리들이다. 이것은 영적(靈的)인 교회 안에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다. 이것을 보편적 교회(普遍的教會)라고 부른다.

그러나 가견적 교회 안에는 의로운 자와 함께 악한 자도 있다. 교회는 거룩하다. 날마다 개선(改善)하여 가고, 날마다 전진(前進)하는 한 교회는 거룩하다. 비록 완전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교회의 거룩

는 이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한다. See Calvin, *Commentary on II Pet.* 1:20.

122) *Inst.* 1:7:5.

123) 칼빈의 주석, 벨후 1:20을 보라.

124) A. Mitchel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a Modern Interpretation* (Glasgow: Machehase, Jackson & Co., 1920), p.72.

125) *Inst.*, 4:1:4,7.

함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통하여 공동체(共同體)의 지체가 되도록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님에 의하여 성화(聖化) 받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거룩하다(요 17: 17-19, 엘 5: 26).¹²⁶⁾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가전적 교회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여 모든 예정된 회중(會衆)을 의미한다. 교회는 사제(司祭)들과 감독들 및 교황을 가진 교직제도(敎職制度) 체제가 아니고 신비로운 체제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¹²⁷⁾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주로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 가르침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 은총(內的 恩寵)의 보이는 징표인 성례전(聖禮典)을 행함으로써 입증(立證)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참 교회로서의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두 가지 간결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곧 말씀의 신실한 설교와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주의 깊은 훈련의 실시"이다.¹²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위로부터 계시(啓示)를 주시게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목사들로 하여금 그의 진리를 설교하게 하시며 또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¹²⁹⁾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화해(和解)가 없다)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사야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³⁰⁾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33: 24)교회원들의 예는 이 특권(特權)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신실한 사람들과의 사귀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교회로부터의 이탈은 영원한 구원의 공공연한 거부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귀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자신이 제네바 개혁교회의 새로운 정책(政策)과 훈련체계(訓練體系)의 설립자(設立者)였고 입법자(立法者)였다.

그는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회의 징계(discipline)에 대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인의 훈련과 연합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는데 그의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¹³¹⁾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유일한 입법자(立法者)이다(파벨에게, 1540년 5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우리 가운데서 크게 요구되는 저 옛날 사도시대(使徒時代)의 훈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속적(永續的)인 교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볼링거 [Henry Bullinger]에게, 1538년 2월 21일,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事役者)들과 함께 친근한 사귀를 애써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교회가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볼링거에게, 1539년 3월 12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126) Cf. *Inst.*, 4: 1: 17; *Comm. Gal.*, Ph., p. 322.

127) *Inst.*, 4: 1: 1.

128) Hunter, *op. cit.*, p. 156.

129) *Inst.*, 4: 1: 1; *Comm. Harmony of Gospels*, p. 291.

130) John Calvin, *Comm. Isaiah* III, pp. 42-43.

131) Jules Bonnet, *Letters of John Calvin*, Vol. I, 1858, pp. 66, 113, 185.

④ 人間觀

칼빈의 인간관(人間觀)은 세속적 인간관과 다르다. 그는 인간에 관하여 논할지라도 항상 강조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칼빈의 인간관은 성경을 근거로 하며, 성경은 인간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 이해한다.¹³²⁾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당(正當)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¹³³⁾

칼빈은 인간에 관한 지식은 이중적 구조(二重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는, 인간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지식과 둘째는, 시조(始祖)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였는가 라는 지식이다.¹³⁴⁾

칼빈의 이와 같은 인간 이해(人間理解)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하나님의 形像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1-2:24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創造行爲)는 세가지 용어 즉 가르고, 만들고, 빛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⁵⁾ 빛과 어둠을 갈라 시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수직적 가름과 물과 물의 수평적 가름을 통하여 공간(空間)을 만드셨다.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시간의 표(表)로 만들었다. 이 창조되 테두리 안에다가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후에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또 인간을 빛으셨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創造事役)의 왕관이다. 인간은 이른바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며, 이성적 동물이다.¹³⁶⁾

132) 오인탁, '기록고 인간학 서설', 敎會와 神學, 제XII집(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80), p.230.

133) *Inst.*, 1:3:1.

134) *Inst.*, 1:15:1.

135) 오인탁, *op. cit.*, p.231.

136) *Ibid.*, p.232.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원시상태(原始狀態)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⁷⁾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靈的)인 것으로서,¹³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질(本質)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만물들과 구분(區分)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재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창 1:26, 27, 9:6, 약 3:9).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同義語)로서 교대(交代)로 사용되고 있다.¹³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간 이해(人間理解)의 핵심이다. 신학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된 지식(知識)과 의(義)와 성(聖)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⁰⁾ 성경에는 <심히 좋게>(창 1:31), <정직하게>(전 7:29), <새 지식>(골 3:10), <의와 성>(엢 4:24)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도덕적(道德的) 하나님의 형상 또는 비본질적(非本質的, accidental)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¹⁴¹⁾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영(靈)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니 그 형상인 인간도 영(靈)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영성(靈性) 혹은 인격의 속성(屬性)들로서 인간의 본질적 소질(本質的 素質)에 속하는 요소들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다. 영의 근본적 속성은 이성(理性), 양심(良心), 의지(意志)이다. 영은 이성적인 고로 자유동작자(自由動作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심에 있어서 영이신 자기의 성질에 속하는 속성(屬性)을 부여하셨다.¹⁴²⁾

137) '鄭正淑, 基督敎 家庭의 神學的 基礎', 改革神學, 제V집(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교, 1979), p.176.

138) *Inst.*, 1:15:3.

139) 鄭正淑, *op. cit.*, p.177.

140) *Ibid.*

141) *Ibid.*

14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인간이 그의 창조주(創造主)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¹⁴³⁾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창 1:27),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외형(外形) 가운데 비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좌소(座所)는 영혼에 속한다고 하였다.¹⁴⁴⁾

(b) 죄로 타락한 인간

칼빈의 인간관(人間觀)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하여 범죄자(犯罪者)가 되었다는 점이다.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叛逆)이며, 불순종의 결과이다. 이것은 불신앙(不信仰)으로부터 연유되었다.¹⁴⁵⁾ 타락 이후의 인간은 완전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칼빈은 가혹한 표현을 하였다.

인간은 천성(天性)이 타락되어 있으므로 모든 인류를 집단적(集團的)으로 그리고 개인적(個人的)으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미치광이로까지 서둘러 놓았으므로 성령께서는 드디어 무서운 저주를 천둥처럼 내리치신 것이다.¹⁴⁶⁾

인간은 저옥의 저주를 받도록 태어났다.¹⁴⁷⁾

이러한 타락이 오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交際)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정죄(定罪)를 받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p. 97.

143) *Comm. on Gen.* 5:11.

144) *Inst.*, 1:15.

145) James Mackinnon,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Russell & Russell Inc., 1962), p. 231.

146) *Inst.*, 1:11:4.

147) *Inst.*, 2:16:3.

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自覺)하게 되었다.

인간의 타락은 인성(人性)의 전적 부패를 가져 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적극적 성(積極的聖), 상대적 완전(相對的完全), 전체적 조화(全體的調和)로 구성된 원의(原義)를 상실하게 되었다.¹⁴⁸⁾

뿐만 아니라 죄의식(罪意識)을 가지게 되며, 육체적 사망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고, 인간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환경의 악화(惡化)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¹⁴⁹⁾

인류 시조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고 한 말씀이 범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¹⁵⁰⁾

아담의 원죄(原罪, peccatum originale)와 인간의 본죄(本罪, actual sin peccatum actuale)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3) 구속받은 자로서의 인간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속(救贖)하셔서 창세전(創世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엢 1:4, 딤후 1:9),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¹⁵¹⁾

148) 鄭正淑, *op. cit.*, p. 180.

149) Edward J. Young, *Genesis 3*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6), pp. 94-156.

150) 롬 5:12은 아담이 인류 조상으로서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준다. 펠라기안학파(Pelagians)에서는 "인간은 生來的으로 죄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이 성구를 통하여 반박된다. 아담 안에서의 모든 인간은 비록 영아일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박윤선, *성경주석: 로마서* (서울: 영음사, 1962) pp. 193-195 참조).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죄와 사망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Comm. on Rom. & Thessal.*, pp. 111-2.

151) 鄭正淑, *op. cit.*, p. 184.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仲保者)의 역할을 담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贖罪事役)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였다.¹⁵²⁾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받은 죄인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구속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

⑤ 社會觀

칼빈의 교육사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사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사회관(社會觀)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것은 교육이 현실이라는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실을 보는 눈을 살펴 보아야 한다.

칼빈은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제 해결(問題解決)의 방법을 찾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칼빈은 인간이 사회와 유리되어 살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 동물(社會的動物)임을 알고, 그가 내세운 행위계약(行爲契約)의 교리와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는 사회적 유기성(社會的有機性)을 암시하고 있다.¹⁵³⁾

이러한 유기적 사회관(有機的社會觀)은 현세(現世)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세의 고통을 통하여 내세(來世)의 영광을 명상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¹⁵⁴⁾

하나님의 창조세계(創造世界)가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인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앙은 내세(來

152) *Ibid.*

153) 金義煥, 칼빈의 社會觀, 神學指南 제38권 1절, pp. 75—76.

154) *Ibid.*, 3:9:1.

世)와 현세(現世) 가운데 한쪽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긍정하면서 내세를 소망하고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¹⁵⁵⁾

이 세상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인간을 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삶의 다양성(多樣性)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사회관은 인간들에게 윤리적 이상(倫理的 理想)과 목표(目標)를 제시하여 줄 뿐 아니라 이것을 실제 생활에 실천하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헨리 반틸은 <이와 같이 생활 실천(生活實踐)에 있어서 신학 자체가 신앙인의 윤리(倫理)와 경건(敬虔)의 증진에 있었고, 교리도 신앙과 생활의 참 종교를 확립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¹⁵⁶⁾ 칼빈은 이러한 사회관을 바탕으로 하여 경건한 생활훈련(生活訓練)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회와 시민생활의 질서를 강조하고, 여기서 신앙인의 사회정의(社會正義)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社會的責任)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올바른 의식(意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¹⁵⁷⁾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영역(領域)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며, 상부 상호하여야 한다. 통치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하기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여야 한다. 세제, 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통치자는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⁵⁸⁾

칼빈의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기초(基調)로 하여 형성되었고 또한 발전되었다.

155) 金義煥, *op. cit.*, pp. 77—78.

156)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p. 192.

157) 金義煥, *op. cit.*, p. 79.

158) 申福潤, 칼빈의 國家觀, 神學指南 제40권 2호, pp. 15—18.